인문연구 제93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3, No. 1, pp.53~84
http://dx.doi.org/10.21211/JHUM.93.3

인도 언어의 재편성 : 따밀나두의 반힌디어 운동을 중심으로*

이지현**

〈차 례〉

1. 서론
2. 독립 전후 인도의 언어정책
3. 따밀나두에서의 반힌디어 운동
4. 따밀어의 근대화
5. 결론

【국문초록】

인도의 독립 이후 언어가 재편성되는 과정을 남인도, 따밀나두의 반힌디어 운동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인도에서 언어는 권력으로 작동했다. 영국 식민지 시대 인도의 정치 지도자들은 힌디어 기반으로 한 통일된 국가를 구상했으나 비힌디어권의 반대를 야기했다. 따밀나두에서 시작된 반힌디어운동은 아리야와 드라비다, 브

* 이 연구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079749).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 연구교수.

라흐만과 비브라흐만의 갈등으로 퍼져나갔다. 1937년 3중 언어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시작된 반힌디어 운동은 독립 이후 헌법에 국어로 힌디어를 선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1965년 반힌디어 운동은 사회적 움직임으로 연결된다.

따밀어 정제 운동과 함께 아리야의 잔재인 산스끄리뜨나 차용어를 제거하고 순수 따밀어를 부흥시킴으로 따밀나두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따밀어는 문어와 구어가 다르게 발달했고 13세기 확립된 문어로는 근대의 사상과 기술을 표현해낼 수 없었다. 따라서 근대의 구어가 표준화되는 과정을 거쳤고 결국 따밀어는 분쟁의 언어에서 다시 공존의 언어로 나아가게 되었다.

주제어 : 따밀어, 언어정책, 지역어 운동, 반힌디어 운동, 따밀어 정제운동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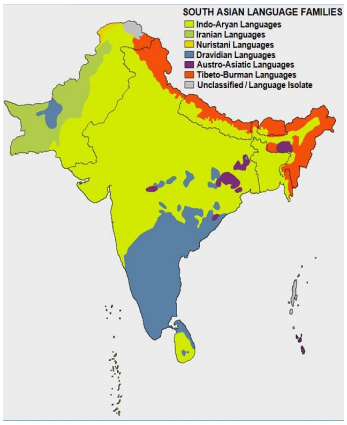
오늘날 인도는 수천 개의 방언을 가진 다언어 국가로, 국어(National Language) 대신 공용어(Official Language)인 힌디어와 영어, 그리고 헌법에 지정된 22개의 지정어(Scheduled Language)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의 29개 주 중 인도의 웃따르 쁘라데시(Uttar Pradesh), 비하르(Bihar), 자르칸드(Jharkhand), 히마짤 쁘라데시(Himachal Pradesh), 웃따르칸드(Uttarakhand), 하리야나(Hariyana), 라자스탄(Rajasthan), 찻띠스가르(Chhattisgarh) 그리고 마드야 쁘라데시(Madhya Pradesh) 주를 힌디어권으로 보고 있으며, 2011년 센서스[1] 기준으로 힌디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대략 528

1) http://censusindia.gov.in/2011-Common/CensusData2011

백만 명이다. 인도 인구의 43% 정도로 추산되며, 여기에 제2언어와 제3언어까지 포함하면 대략 57%로 늘어난다. 반면, 힌디어 외에 벵갈어(Bengali) 8.03%, 마라티(Marathi) 6.86%, 텔루구(Telugu) 6.70%, 따밀(Tamil) 5.70% 등 모두 한 자리 수에 지나지 않는다.



〈인도지역별 언어 사용 현황〉[2]



〈아리아어와 드라비다어 분포도〉[3]

1991년부터 2001년, 2011년 센서스 비교 결과 힌디어 사용자 는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타 지역 언어는 감소하는 추세가 드러난다. 더욱이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취임 이후 강력해진 힌두 민족주의로 지역 간 반목을 야기했다. 힌디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른바 3중 언어정책(3 language formula)을 시행하면서 비힌디어권에도 힌디어를 보급하기 시작했고, 비힌디어권은 반힌디어 운동(Anti-Hindi Imposition)으로 맞서고 있다. 이 정책은 1937년 영국 식민 통치 시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영국 식민 통치 시대부터 독립 이후까지 인도를 통합하는 매개로 힌

2)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anguage_region_maps_of_ India.svg
3)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outh_Asian_ Language_Families.jpg

디어가 떠올랐지만, 비힌디어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인도에서 단일 언어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봉합하는 양상으로 매듭지어졌다. 다언어국가에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언어는 권력과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인도의 언어운동이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는 힌디어에 편중되어 있었다. 식민통치 아래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힌디어가 중요해졌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힌두와 무슬림의 갈등, 그리고 힌두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힌디어 정제운동이나 나그리 문자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인도의 지역어 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립 전후 인도의 언어정책과 함께 가장 격렬하게 힌디어 도입을 저지했던 남인도의 따밀나두 주의 반힌디어 운동을 알아본다. 반힌디어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따밀나두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언어를 기반으로 따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따밀어가 근대어로 재정립되는 되는 과정을 통해 인도에서 언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힌디어 운동의 결과가 다언어 국가에서 언어를 재편성하는데 미친 영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독립 전후 인도의 언어정책

인도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언어를 기반으로 통일된 국가를 구상했다. 인도를 통합하기 위해 북인도를 중심으로 힌디어를 인도의 언어, 즉 국어로 만들어 영국에 대항하려 했지만, 힌디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힌디어와 우르두어는 그동안 다른 문자를 사용했을 뿐 유사한 어휘와 문법체

계를 공유하던 언어로 인식되었으나 영국의 분할통치(divide and rule)로 힌디어와 우르두어에 정체성이 부여되었고 이는 곧 힌두와 무슬림의 갈등을 야기했다. 그 결과 20세기 초반 힌디어를 정제하고 표준화 시키려는 힌디어 운동(카리볼리 운동)이 일어났다. 마하뜨마 간디는 당시 우르두어를 지칭하던 힌두스타니(Hindustani)라는 명칭을 통해 힌디어와 우르두어를 구분하기보다 하나의 언어로 인정했다. 1918년 초 남인도 힌디어 보급 단체(Dakshin Bharat Hindi Prachar Sabha)를 당시 마드라스(현 따밀나두)에 설립했고 이후 1936년 남인도에 지속적으로 지부를 설립하는 등 힌디어를 인도 전역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간디는 힌디어를 '국어'라기 보다 다언어 국가인 인도의 '연결어'의 기능을 하는 언어로 보았다. 다수가 사용하는 힌디어와 데브나그리 문자를 사용한다면 인도인들이 하나로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힌두 민족주의와 함께 힌디어가 힌두를 대표하는 언어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인도를 통합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힌디어 운동은 곧 분열을 야기했다. 더욱이 인도의 중앙정부가 1937년 비힌디어권에 힌디어를 의무적으로 학습해야하는 3중 언어정책을 펼치면서 비힌디어권은 그들의 정치적 움직임을 매우 공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이 말살당한다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잃을 것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인도의 곳곳에서 반힌디어 운동을 일어났다. 반힌디어 운동이 가장 먼저 그리고 활발하게 일어난 곳은 남인도의 따밀나두이다. 따밀나두에서 반 힌디어 운동은 단순히 힌디어를 막고자 하는 정치, 사회 운동이 아니었다. 남인도에서는 이것을 북인도의 억압으로 보았고, 아리야와 드라비다 민족의 대결구도로 만들었다. 반 힌디어 운동은 반 브라흐만 운동, 드라비다 운동 등 민족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드라비다 운동을 이끌었던 뻬리야르(Periyar, 본명은 E. V.

Ramasamy)[4]와 같은 급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반힌디어 운동에 앞장섰다. 1937-40년의 반힌디어 운동으로 따밀나두 의회의 권력이 바뀌면서 힌디어를 국어로 만들려는 시도는 무산되었다. 1939년 의회가 사임했고, 다음해 2월 마드라스의 에르스킨 경(John Francis Ashley Erskine, Lord Erskine)은 법령을 철회했다.

독립 이후 다시 힌디어를 국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인도와 벵갈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1949년 헌법 위원회(The Constituent Assembly Debates)에서 '국어(National Language)'라는 용어 대신 '공용어(Official Language)'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힌디어와 함께 15년 동안 영어를 공용어로 추가 지정한다는 조항(제 343조)을 넣었고, 15년 동안 인도의 공용어로서 역할을 하는 사이 힌디어를 보급하고 영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5년 뒤 언어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면서 이 문제를 15년 뒤로 연기했다.[5] 그리고 주와 연방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방법(제 345조), 법정의 절차 빛 법안, 법률 등(제 348조)에서 영어가 추가로 사용되었고, 국가는 힌디어를 보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의무(제 351조)가 입법되었다.[6] 헌법에 공용어법이 재정된 이후 힌디어 지지자들은 힌디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앙의 공공기관에서는 힌디어 교육이 이루어졌고, 공적 업무에 사용되던 영어 외에 힌디어도 함께 사용했다. 이들은 힌디어 법률 사전이나

4) 본명은 E. V. 라마사미(Erode. Venkata. Ramasamy)이며 1929년 카스트를 나타내는 성인 Nayakar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따밀어로 '어른',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뜻의 뻬리야르로 이름을 바꾸었다.

5) 1955년 제정된 헌법 343조 1항 "연합 정부의 공용어는 데바나가리로 쓰인 힌디어여야 한다. 의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적 업무에서 영어의 사용은 15년 뒤 1965년 1월 26일 중단될 것이다." https://www.constitution.org/cons/india/p17344.html

6) Jayasundara Sarath Niruba, *The Development of Language Education Policy: An Indian Perspective; a View from Tamil Nadu,*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4-11, 2014, p. 2.

힌디어로 과학용어나 기술용어를 개발하는 등 힌디어 보급에 앞장섰다.[7)]

1963년, 공용어 법(The Official Languages Act)이 제정된 이후 인도 헌법 제 344 조에 명시된 15년이 가까워지면서 연방 정부는 공용어 법을 다시 제정했다. 헌법 343조 1항 에 따라 15년 뒤 영어를 힌디어로 대체해야하는 정부의 계획은 다시 비힌디어권 지역의 반힌디어 운동에 부딪히고 만다. 께랄라와 구즈라뜨, 마하라슈뜨라, 따밀나두, 뻔잡, 서벵갈, 까르나따까, 폰디체리, 안드라 쁘라데시 등에서 반대의 움직임이 일었다. 남인도 DMK(Dravidar Munnetra Kazhagam) 정당의 대표 C. N. 안나두라이(C. N. Annadurai)는 이 입법에 반대하면서 비힌디어 사용자를 위해 계속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반힌디어 운동을 시작했다. 결국 당시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는 1963년 공용어 법에서 영어를 힌디어와 함께 공용어로 쓸 수 있다고 바꾸었다.

그러나 1964년 네루의 서거 이후 이들은 다시 영어가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 더욱이 INC(Indian National Congress)의 M. 박뜨바뜨살람(M. Bhaktavatsalam)이 마드라스 입법부에서 3중 언어정책, 즉 지역어와 영어, 그리고 힌디어를 도입하자마자 반발이 일었다. 지금까지 지역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던 2중 언어정책에서 힌디어가 의무 사항이 되었다. 사실

---

7) 힌디어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언어들이 받아들이는 것 역시 연합정부의 역할이었다. 인도 헌법 제 344조 1항과 제 351조에는 연방정부나 의회의 공용어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중 "힌디 발전 방안"은 17편 4장(350a, 350b, 351조)과 관련이 있으며, 힌디를 보급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은 인도 문화의 결집체를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써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힌두스타니나 다른 인도의 언어로 사용된 표현이나 문체, 형식 등이 어떠한 강요 없이 동화됨으로써 풍요로워 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북인도 역시 힌디어가 포함된 남인도와 마찬가지로 3개 언어 중 드라비다어를 선택해야했지만 이들은 3언어 정책을 거부하거나 지역어, 힌디어 그리고 다른 하나를 산스끄리뜨어로 선택해 이 정책을 무산시켰다. 학생들은 반힌디어 운동으로 즉각 결집했으며 학생들과 의회의 충돌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때 인도 정부의 무력진압으로 2주간의 폭동에서 약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따밀나두의 주장관들 C. 수브라마니암(C. Subramaniam)과 O.V. 알라게산(O.V. Alagesan)은 랄 바하두르 샤스트리(Lal Bahadur Shastri) 총리에게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등 의회가 분열되었다. 결국 1965년 선거에서 INC는 실권했고, DMK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들은 따밀어를 지키는 것을 주요 의제로 삼았고, 결국 3중 언어 정책은 2중 언어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1967년 통과된 새로운 공용어 수정 법안에는 비힌디어권 지역을 위해 영어가 정부의 행정어로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더욱이 인드라 간디(Indira Gandhi)가 이끄는 INC 역시 힌디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무기한으로 사용하는 "2중 언어 정책"을 지지하면서 인도 헌법에는 국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적 업무나 의회에서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8] 단지, 주정부의 연방 업무를 위해서 1976년 공용어 법을 다시 수정하였으며, 중앙정부와의 소통에는 힌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했다. 헌법 346조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주 정부 간의 소통에는 힌디어를 권유했고, 중앙정부와 비힌디어권 주 정부와의 소통에는 힌디와 영어 번역이 첨부되었다.

공용어법 문제 이외에도 1937년의 반힌디어 운동 이후 지역어들

8) 인도 헌법 제 343조에서 351조까지 인도의 언어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중 343-4조는 중앙 정부의 언어조항이고, 345-7조는 지역어 관련 조항, 348조는 법원에서의 언어문제, 349는 언어에 관한 법제정 절차, 350-1조는 소수언어 보호와 힌디 확대보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힌디어 발달사, p. 295).

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도의 지역어들은 각각 분리를 요구했다. 언어를 기반으로 주를 재편성하는 문제는 영국 식민지 시대인 1895년 지금의 오디야 주(Odia)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비하르 주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마두수단 다스(Madhusudan Das)는 비하르에서 오디야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독립시켜달라고 요구했고, 그 결과 1936년 비하르 주에서 독립해 오디야주로 재편된다. 오디야주의 재편 이후 영국 식민통치 아래 벵갈, 아쌈 등의 주에서도 언어를 기반으로 주 재편성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특히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주 재편성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인도는 단일 언어 국가 체제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 통합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되었다. 인도의 정치가인 띨락(Lakmanya Tilak)은 인도의 다양한 언어를 인정했고 행정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주를 구성한다면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구성원들이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결국 다르(Dhar) 위원회는 지금의 안드라 쁘라데시, 까르나따까, 께랄라, 마하라슈뜨라의 분리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1948년 언어 지역 편성 심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는 언어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에 특별한 이득이 없고, 특히 국경의 이중 언어 지역이 분열되는 것을 우려했다. 암베드까르, 네루, V.K. 끄리슈나와 같은 지도자들 역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데 있어 지리적, 경제적, 행정적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며 다르 위원회의 의견을 지지했다. 그러나 남인도의 따밀나두에서 뽀띠 스리르말루(Potti Srirmalu)가 따밀나두 북부의 뗄루구어 지역의 독립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중 사망하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분리 독립을 위한 비샬안드라 운동(Vishalandhra movement)으로 이어졌다. 결국 네루는 1953년 뗄루구어를 사용하는 따밀나두의 북부지역을 안드라 쁘라데시로 분리시켰다. 처음으

로 국가개혁위원회에서 주 재편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1956년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남인도는 언어를 기반으로 안드라 쁘라데시, 마이소르(1973년 까르나따까로 개명), 마드라스(1969년 따밀나두로 개명), 께랄라 4개의 주로 편성되었으며, 1960년 봄베이가 구자라뜨와 마하라슈뜨라로 분리되었고 1966년 뻔잡은 히마짤 쁘라데시와 하리야냐주에 부분 편입되었다. 짠디가르는 연방령이 되었고 동북부 역시 1962년 나갈랜드, 1972년 메갈라야, 1972년 미조람, 1972년 아루나짤 쁘라데시로 편성되었다.

인도는 수차례 언어운동을 겪으면서 각 주마다 주별 공용어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제 8별항(the Eighth Schedule)에서 22개의 지정어가 헌법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9] 처음에는 아싸미(Assamess), 벵갈리(Bengali), 구즈라띠(Gujarati), 힌디(Hindi), 깐나다(Kannada), 까슈미리(Kashmiri), 말라얄람(Malayalam), 마라티(Marathi), 오디야(Odia), 뻔자비(Punjabi), 산스끄리뜨(Sanskrit), 따밀(Tamil), 뗄루구(Telugu), 우르두(Urdu) 총 14개의 언어가 헌법에 포함되었고 이후 1967년 21차 헌법 개정에 신디(Sindhi), 1992년 71차 개정에 꽁까니(Konkani), 마니뿌리(Manipuri), 네빨리(Nepali)가 추가되었다. 2003년 보도(Bodo), 도그리(Dogri), 메이틸리(Maithili), 산딸리(Santali)가 92차 개정안에 추가되었다.[10]

---

9) 지정어로 지정되는데 특별한 법을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문학전통이나 문자가 있는 언어, 일정 지역에서 지배적 다수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정치적 배려, 새로 구성된 주에서 공용어로 인정된 언어, 인도 주요문자의 근대화 작업에 자원이 되는 언어 등이 있다.

10) 지정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언어인지 방언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그 중 메이틸리어도 힌디의 방언으로 분류되었다가 지정어로 지정되었다. 1951년, 1961년의 통계에만 메이틸리어가 보이고 이전에는 비하리 방언으로 분류되었다.

3. 따밀나두에서의 반힌디어 운동

1) 1937-40년 : 반힌디어 운동과 드라비다 민족주의

따밀나두의 반힌디어 운동은 3중 언어정책에서 촉발했다. 1937년 마드라드 지방 의회(Madras Presidency) 선거에서 INC가 승리하면서 C. 라자 고빨짜뜨리(C. Rajagopalachari)가 주 총리로 임명되었고, 라자는 학교에서 의무 힌디어 교육을 도입하려 했다. 이는 남인도 내 교육기관에서 여타 남인도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힌디어를 학습하려는 정책으로, 라자는 따밀어를 힌디어로 대체하려던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인도인이 사용하는 힌디어를 학습해야 남인도 밖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INC 내부에서도 힌디어를 채택하는 데 있어 의견이 달랐다. 라자와 까르나따까의 주 총리인 B. S 예디유랍빠(B. S. Yediyurappa) 등의 정치인들은 학교에서 힌디어를 의무로 학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땨무르띠(Sathyamurti)와 사르베빨리 라따끄리슈(Sarvepalli Radhakrishnan)등은 학교에서 힌디어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힌디어가 강요될 경우 남인도는 분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힌두스타니 세바 달(Hindustani Seva Dal)이나 힌두스타니 히타쉬 사바(Hindustani Hitashi Sabha)와 같은 힌디어 보급 단체들에 힘입어 남인도에 강제적으로 힌디어 교육이 도입되었다. 이에 반힌디어 운동이 조직되었고 1940년 이 제도가 철회되기까지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반힌디어 운동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의 지지를 얻었다. 꾸르마 벤까따 레디 나이두(Kurma Venkata Reddy Naidu)와 빤니르셀밤(Pannirselvam)등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마드라스 주 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치인 이외에도 마라이말라이 아

디깔(Maraimalai Adikal), 소마순다르 바라티(Somasundara Bharathi), K.아빠두라이(K. Appadurai), 무디야라산(Mudiyarasan), K. P. A. 비수완탐(K. A. P. Viswanatham) 및 일락꾸바나르(Ilakkuvanar) 등 따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자들과 따밀나두 여성회의(Tamil Nadu Women's Conference)는 반힌디어 운동을 지지했다. 뿐만 아니라 반 브라흐만 정서가 퍼져 있는 남인도에서 일부 브라흐만들과, 무슬림(우르두어가 아닌 따밀어를 사용자)도 반힌디어 운동에 동참했다. 특히 뻬르야르는 반힌디어 운동을 매우 공격적으로 이끌었다. 이들은 1938년 Indian Express, Ananda Vikatan, Dina Mani, 그리고 Tamil Mani 등 언론사 사무실을 공격하고, 경찰에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1938년 42일 동안 234개의 작은 도시나 마을을 다니며 반힌디어 운동을 선동했고, 마드라스에 돌아오자마자 경찰에 연행되고 말았지만 따밀어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결국 라자는 따밀인들의 적이 되고 말았고, 1937년부터 1940년까지 반힌디어 운동의 영향으로 마드라스 의회의 권력이 바뀌었다. 콩그레스가 물러나고 정의당(1944년 Dravidar Kazhagam으로 이름을 바꾸었다)이 집권했다.[11] DK의 등장으로 INC가 물러나면서 마드라스 의회에서 브라흐만이 독점하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비힌디어권에 힌디어를 도입하려는 문제는 단순히 언어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의미했다. 인도 중앙정부의 언어정책을 비힌디어권에서는

11) 뻬리야르가 이끌던 정의당이 DK로 이름을 바꾸었고, DK의 주요 지도자였던 안나두라이가 나와 만든 것이 DMK(Draviduan Munnetra Kazahagma)이다. 드라비다 지역의 자치를 목표로 하는 두 정당의 이념은 유사하나 뻬리야르가 이끄는 DK는 DMK에 비해 급진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DK와 견해를 달리하던 뻬리야르는 1948년 DK에서 탈당한 후 DMK에 입당한다. 드라비다 나두를 꿈꾸던 DK는 1967년 DMK가 집권하고 나서 분리독립을 포기하게 된다.

매우 공격적으로 받아 들였고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남인도인들은 힌디어를 도입함으로써 수 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전통과 정체성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믿었다. 초기 반힌디어 운동은 뻬리야르의 급진적인 성격으로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따밀나두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25년 뻬리야르가 시작한 자아 존중 운동(Self-Respect Movement)과 정의당(Justice Party)[12]의 지원을 얻게 되면서 몸집이 커지기 시작했다. 자아 존중 운동은 반 브라흐만 운동으로 카스트 제도나 가-불가촉 등의 악습에서 벗어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었다. 뻬리야르는 이들을 열등하게 만드는 카스트나 종교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을 아리야의 잔재로 보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드라비다인들에게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자극했다.[13]

남인도에서 민족이란 지역이나 종교가 아닌 드라비다 전체를 의미했다. 이들에게 북인도는 아리야 민족, 즉 브라흐만을 상징했다. 반힌디어 운동은 아리야와 드라비다 그리고 브라흐만과 비브라흐만의 문제로 이어졌고, 드라비다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14] 사실 반힌디어 운동은 힌디어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자신들의 언어가 밀려나면 정체성이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뻬리야르는 1938년 '따밀인을 위한 따밀나두'라는 슬로건을 아래 힌디어를 강

12) 정의당(Indian Libertarian Federation, 일반적으로 Justice Party)은 1916년 설립되었다. 당의 구성원 대부분은 비브라흐만으로 카스트 제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에서 벗어나 평등한 사회 구조를 꿈꾸었다.

13) Geetha, V. and Rajadurai, S .V., 『Towards a Non-Brahmin Millennium: From Lyothee Thass to Periyar』, Calcutta: Samya, 1988, p. 556

14) 뻬리야르는 산스끄리뜨 서사시인 라마야나와 바가바드 기따 등 힌두 경전을 거부했으며 신의 존재조차 부정했다.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람과 라반의 전투는 북인도과 드라비다와의 전투를 상징했기 때문에 라마야나를 비판했고, 다른 베다나 샤스뜨러에 등장하는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1959년 광장에서 라마야나와 바가바드 기따를 불태우고 만다.

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리야인들이 힌디어를 통해 드라비다 문화에 침투하기 위한 술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15] 실제로 남인도에서 브라흐만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남인도인들은 북인도가 인도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남인도는 열등하다고 여겨지거나 착취당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힌디어로 인해 브라흐만과 비브라흐만의 지배-피지배구조가 심화되어 결국 인도를 후퇴시키고 말 것이라고 믿었으며, 드라비다 운동, 반브라흐만 운동, 반힌디어 운동에 합류했다. 브라흐만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브라흐만의 언어인 산스끄리뜨 역시 배제시켰고, 산스끄리뜨를 모어로 하고 있는 힌디어에도 적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1946-50년 : 독립 이후 힌디어의 공용어 지정 반대

1946년 헌법 위원회에서 국어나 헌법에 쓰이는 언어, 의회의 언어 등 언어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북인도에서는 힌디어를 국어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비힌디어권에서는 이를 반대했다. 마드라스의 장관 크리슈나마츠리(T.T. Krishnamachari)는 1948년 한 토론회에서 강제적으로 특정 언어를 도입하는 것은 그 언어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언어 제국주의(language imperialism)라고 했다. "언어 제국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제국주의가 있으며 그 중 언어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사상을 퍼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런 편협함은 입법부의 언어, 즉 중앙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만들어냈다. 웃따르 쁘라데시에

15) Saraswathi, S. (2004), 『Towards Self-Respect』, Madras: Institute of South Indian Studies. pp. 118-9.

있는 사람들은 '힌디 제국주의'를 가능한 한 멀리 퍼뜨릴 것이다. 이들은 인도 전체를 'Hindi-India'로 결국 그들이 인도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인도의 언어 정책으로 비힌디어권 지역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결국 각 주의 지역어마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16]

따밀나두의 주 총리였던 오만두르 라마사미 레디어르(Omandur Ramasamy Reddiar)는 중앙 정부의 3중 언어정책을 도입해 힌디어를 의무화했고, 고등 교육 과정으로 진학하는데 힌디어 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에 DK와 뻬리야르는 다시 반힌디어 운동을 일으켰고 M.P 쉬브갸남(M.P Sivagnanam)과 티루(Thiru) 등의 민족주의자들이 지지했다.[17] 이들은 힌디어 대신 영어를 제안했으며, 콩그레스의 전 교육부 차관이자 1955년 개최된 제1차 공용어 위원회인 P. 수바라얀(P. Subbarayan)은 "… 힌디어는 다른 인도의 언어들, 특히 벵갈어와 따밀어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발달된 언어로 보이지 않는다. … 따밀어 사용자들은 힌디어보다 영어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더 쉽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들은 굳이 자신들의 모어를 버리면서 하급의 언어를 선택하면서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서 힌디어가 영어를 대체할만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한 영어가 인도의 공용어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6년 1월 안나두라이와 뻬리야르, 그리고 과거 힌디어를 지지했던 따밀나두의 주 총리 라자는 따밀문화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힌디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할 것을 선언했으며, 다음해 10월 13일

16) Nayak, Bhabani Shankar,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Policy in Contemporary India』, Delhi: Atlantic Publishers & Distributors (P) Ltd, 2006.

17) 다섯 달 동안 이어진 투쟁 끝에 힌디어 의무화는 선택 사항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밀나두 주에서는 따밀어와 영어를 포함한 '2개 언어 정책'(two-language policy)을 채택했고, 힌디어를 제외시키지는 않았으나 의무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었다.

을 '반힌디어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또한 라자의 주최로 All India Official Language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여기에 따밀, 말라얄람, 뗄루구, 아쌈, 오리야, 마라티, 깐나다, 그리고 벵갈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힌디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영어가 이질적이듯이 힌디어 역시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질적인 언어일 뿐이라며 힌디어 도입을 반대했다. 뻬리야르 역시 이 컨퍼런스에서 힌디어 대신 영어를 공식어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반대에 1959년 네루는 비힌디어 사용자들에게 힌디어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비힌디어권에서 힌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데서 오는 차별 대우도 없을 것이며, 비힌디어권의 선택을 존중할 것을 선언했다.

3) 1965년 이후 : 반힌디어 운동과 따밀 사회

1963년 인도 전역에 다시 한 번 3중 언어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당시 따밀나두를 집권하고 있던 INC는 이를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총리였던 박뜨바뜨살람은 힌디어를 의무로 도입하려는 중앙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실용성의 문제나 국가의 통합, 학습 능력이나 학생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따밀어를 고등교육 기관의 학습 매개어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1964년 3중 언어 정책을 도입했다.[18] 더욱이 1964년 갑작스러운 네루의 서거 이후 힌디어 지지자였던 랄 바하두르 샤스뜨리(Lal Bahadur Shastri)가 인도의 총리로 선출되면서 영어를 공용어에서 제외하겠다는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다시 한 번 분열의 바람이 일었다.

---

18) Ramaswamy, Sumati, 『Passion of the Tongue: Language Devotion in Tamil India 1891-1970』, U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7.

따밀에서는 안나두라이와 뻬리야르, 그리고 이를 따르던 학생들이 대거 반힌디어 운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중앙 정부에서 힌디어를 선택할 경우 공무원 시험이나 학습 매개어가 영어에서 힌디어로 대체되면서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했다. 따밀나두에서 시작한 반힌디어 운동은 곧 남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시위는 매우 폭력적으로 변질되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사세력이 동원되면서 양쪽 진영에서 대략 70여 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동요는 진정되었다.[19]

북인도와 남인도의 경제적인 불균형 등으로 따밀나두에서 INC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반힌디어 운동을 이끌던 드라비다 정당들이 다시 주목을 받았고, 이 정당들은 안드라 쁘라데시, 마이소르, 께랄라 등의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20] 마침내 1967년 선거에서 INC가 실권하고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DMK가 처음으로 집권하게 되었다.[21] 그리고 중앙 정부는 인도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힌디어 운동으로 1967년 힌디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공용어법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집권 이후 DMK는 온건파와 급진파로 노선이 갈라진다. 뻬리야르가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22] 안나두라이는 이와 반

19) 비공식적인 수치로는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결과 샤스뜨리 총리는 비힌디어권에서는 영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약속했다.

20) 반힌디어 운동과 함께 인도에는 지역정치가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남인도에는 드라비다 정당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21) 이후 DMK가 따밀나두에서 드라비다 당이 계속해서 집권당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역정당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22) 뻬리야르는 산스끄리뜨 서사시인 라마야나와 바가바드 기따 등 힌두 경전을 거부했으며 신의 존재조차 부정했다. 북인도에서 람을 신성화했다면 남인도에서는 라바나는 앞세워 람을 외부에서 온 공격자로 취급했다. 라마야나의 람과 라반의 전투는 아리야와 드라비다와의 전투를 상징했기 때문에 라마야나를 비판했다. 그리고 베다나 샤스뜨러에 등장하는 카스트 제도나 사회적 규범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1959년 광장에서 라마

대였다. 온건파는 정부에 결정을 맡겼으나 급진파는 다시 반힌디어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3중 언어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힌디어 이외의 다른 지역어에도 힌디어와 동등한 위치를 줄 것, 그리고 제 8 별항에 명시된 모든 언어에 동등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반힌디어 운동은 정치적 영역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맥락을 이어갔다. 당시 북인도에서 람 사원이나 베다, 산스끄리뜨, 아리야 사상 등을 통해 힌두 국가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DMK는 철저히 신, 즉 힌두의 신을 배제하는 길을 선택했다. 뻬리야르는 신을 만든 사람은 어리석고, 신을 전파하는 사람은 악당이며,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야만인이라고 비판했다.[23] 아리야가 만들어놓은 카스트 제도를 부정했고, 이를 위해 카스트로 인해 차별을 겪는 후진계급인 SC, ST, OBC을 위해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할당제를 69%로 상향하기 위해 싸웠다.[24] 또한 뻬리야르는 남성에 종속되어 있는 구시대적 여성관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정당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혼이나 결혼지참금, 중매결혼, 이혼, 데브다시 등 힌두의 악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비록 뻬리야르의 여성관이 인도 사회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으나, 1971년과 1981년의 통계에 따르면 따밀나두와 께랄라 등 남인도는 북인도에 비해 식자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25]

야나와 바가바드 기따를 불태우고 만다.

23) Zvelebil, K. V., *Ravana the Great in Modern Tamil Fiction,*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1988, p. 130

24) Pinto Ambrose, *End of Dravidian Era in Tamil Nadu,* 『Economic of Political Weekly』, 34, 12-18, 1999, p. 1487.

25) Indian State의 1991년과 1997년, 2001년 식자율에 따르면 인도 전체 평균은 각각 52.2명, 62명, 65.35명이며 따밀나두는 62.7명, 70명, 73.47명, 델리는 75.3명, 85명, 81.82명 그리고 식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께랄라로 각각 89.8명, 93명, 90.92명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비하르로 38.5명, 49

〈표 1〉 1971년과 1981년 식자율 비교

주	식자율(1971)			식자율(1981)		
	평균	남성	여성	평균	남성	여성
델리	65.08	72.55	55.56	61.06	67.96	52.56
웃따르 쁘라데시	25.44	36.69	12.46	28.38	38.87	14.42
구자라뜨	41.84	53.78	29.00	43.75	54.53	32.31
비하르	33.35	35.78	10.24	26.01	37.78	13.58
따밀나두	45.40	59.54	30.92	45.78	57.19	34.12
께랄라	69.75	77.13	62.53	69.17	74.03	64.48
서벵갈	38.86	49.57	26.56	40.88	50.49	30.33
인도 전체	34.45	45.95	21.97	36.17	46.74	24.88

반면 안나두라이는 인종과 카스트 문제에 있어서 DMK는 DK보다 온건파였다. 안나두라이는 브라흐만에 대해 적대감은 있었지만 남인도 내부의 브라흐만에 대한 증오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브라흐마니즘과 브라흐만을 구분했다. 브라마니즘은 파괴되어야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이지만 브라흐만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26] 뻬리야르에 비해 온건파였던 안나두라이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경제를 연결했다. 따밀나두에서는 '드라비다 나두'로 분리하기 위해 기업들은 중앙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이들은 조금씩 따밀나두 밖의 원료나 전인도를 아우르는 유통망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따밀나두가 드라비다 나두로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27] 경제적 이득은 인도를 통합으로 이끌었다. 주변

명, 48.53명으로 집계되었다(0세-4세까지 아동은 제외).
(https://www.indiastat.com/table/education-data/6370/literacy-rate-1901-2000/367635/93131/data.aspx)

26) Pinto Ambrose, *End of Dravidian Era in Tamil Nadu*, 『Economic of Political Weekly』, 34, 12-18, 1999, p. 1487.

27) Ibid, p. 1487.

지역과의 교류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분리와 고립에 얽매이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따밀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그리고 과거 드라비다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기 위해 이용했던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남인도에는 전통적 관념이나 민족적 유대감이 사라지게 되었고, 드라비다 민족주의는 점차 쇠퇴하고 말았다.[28]

4. 따밀어의 근대화

따밀어는 산스끄리뜨와 함께 인도에서 2500년의 역사를 가진 언어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했다. 따밀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언어 구조와 문학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언어이다. 5세기에 쓰인 Tholkappiyam에 1600개의 종교적 시구와 함께 따밀어의 음성학, 음운학, 문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빠브난디(Pavanandi)의 작품 Nannu을 통해 13세기 이미 따밀어의 문어가 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세기 이후 남인도에 침략한 이슬람 세력에 의해 따밀어는 낮은 계층 또는 피지배계층의 언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남인도인들에게 따밀어를 부흥시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표준화하는 것 이상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있었다.

가장 먼저, 산스끄리뜨의 영향으로부터 따밀어와 따밀문학,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지켜야 했다. 1880년대 순다람 삘라이(Sundaram Pillai)는 '따밀 여신에게 기도'라는 서사시의 서문에 따밀은 인도에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곳이며 신이 사는 곳으로 그리고 따밀어는 모든 드라비다어의 어머니이며 사멸되어버린 산스끄리뜨와는

28) Ibid, p. 1488.

달리 살아있는 언어라고 칭송했다. 그리고 따밀어 작품은 예술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카스트 간 차별이나 옳지 못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마누법전과 베다와 같은 산스끄리뜨 작품보다 훨씬 신성하다고 강조했다. 스와미 베다짤람(Swami Vedhachalam)[29] 역시 순수 따밀어를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베다짤람은 자신의 딸 니라여타데이(Neelayathadei)과 함께 자신의 산스끄리뜨 이름을 마라이말라이 아디깔(Maraimalai Adikal), 그리고 니라여타데이는 니람비까이(Neelambikai)로, 그리고 그들이 편집하던 잡지인 Nanacekaram을 Arivukkadal로 바꾸기도 했다. 아디깔 외에도 시브갸나 무니와르(Sivajnana Munivar), 빤디뜨마니 까디레션 쩨띠아르(Panditamani Kadiresan Chettiar), U.V. 스와미나트 아이에르(U.V. Swaminatha Iyer)와 바이야뿌리 삘라이(Vaiyapuri Pillai)와 같은 많은 따밀 학자 역시 따밀어의 언어적, 문학적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빠벤타르 바라티다산(Paventhar Bharathidasan), 다바네여 빠브나르(Devaneya Pavanar) 그리고 빠브라레루 뻬룬치티라나르(Pavalareru Perunchitthiranaar)등의 학자들이 1915년 South India Liberal Federation에서 따밀어에서 브라흐만과 동일시되는 언어, 즉 산스끄리뜨를 제거하겠다고 밝히면서 따밀어 정제운동(Thanith Tamil Iyakkam)[30]이 시작되었다.[31]

초기 따밀어 정제운동은 뻬리야르가 이끌던 드라비다 운동과 함께 발전했다. 뻬리야르는 브라흐만 사상이나 힌디어 헤게모니와

---

29) 쉬바파의 아디갈은 산스끄리뜨와 브라흐만 사상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드라비다 민족주의와는 조금 다르게 이들은 사이비즘(Saiva Siddanta)에 영향을 받았다. 힌디와 브라흐만 헤게모니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와 영어에도 거부감을 가졌다.

30) Independent Tamil Movement 또는 Pure Tamil Movement로 번역되기도 한다.

31) *Kailasapathy, K. The Tamil Purist Movement: A Re-Evaluation,* 『Social Scientist』, 7-10, 1979, p. 30.

연관 지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나 힌두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비 힌디어 사용자에게 다가갔다. 빼리야르는 남인도의 드라비다어족인 따밀어, 뗄루구어, 말라얄람어, 깐나다가 모두 고대 따밀어와 동일한 어계라고 주장했고,[32] 이들 드라비다 언어권에 아리야의 언어인 산스끄리뜨를 제거하여 순수 따밀어를 복원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33] 따밀어에서 산스끄리뜨어를 제거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종속된 북인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두고 따밀을 파괴하려는 힌두 브라흐만들의 계략으로 몰아붙였다. 아디깔과 같이 순수 따밀어를 부흥시키려는 학자들은 고전 따밀어를 보존하고 산스끄리뜨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들은 과거에 대한 긍지를 가졌다. 따밀어를 정제하는데 있어 산스끄리뜨에서 자유로웠던 시대, 즉 상감시대로 회귀를 원했다. 이것은 따밀어뿐만 아니라 따밀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이 시기 따밀에는 반 브라흐만 정서와 함께 따밀 역사와 고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1942년 따밀나두의 안나말라이 대학(Annamalai University)에 따밀 상감음악(Tamil Isai Sangam) 과정이 신설되었고, 따밀나두 이외에도 서벵갈, 뻰잡, 마하라슈뜨라 등 고대의 전통과 문화가 존재했던 곳들은 산스끄리뜨 문화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산스끄리뜨 극예술과 함께 발전한 남인도의 까르나따까 극예술은 산스끄리뜨 요소를 제거하고 고전 양식을 재건했다.

따밀어는 수차례 정제 과정을 거쳤다. 따밀어에서 산스끄리뜨어의 음소나 어휘를 제거하거나 변형하여 순수 따밀어로 정제했다.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은 자신의 산스끄리뜨어 이름을 순수 따밀어

32) 오늘날 드라비다어족은 남부(따밀-말라얄람, 깐나다), 중부(뗄루구) 북부로 분류된다.

33) Veeramani, K., 『Collect Works of Periyar E.V.R』, Chennai: The Periyar Self-Respect Propaganda Institution, 2005, p. 503.

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산스끄리뜨어 지명 역시 바꾸기 시작했다. 1953년 DMK는 따밀나두의 깔라꾸디(Kallakudi) 지역을 람끄리슈나 달미아의 이름을 따 달미아뿌람(Dalmiapuram)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해 달미아뿌람 기차역 간판을 뜯어 버리는 등의 과격한 시위를 벌였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따밀나두의 한 라디오 방송국 앞에서 알라발라간(Alavalagan)과 아랑가라티암(Arangarathinam) 역시 라디오에 산스끄리뜨어 어휘 ākāshavānī가 사용되는 것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나갔다.[34] 또한 안나두라이가 주총리에 임명되면서 따밀나두는 마드라스라는 지명에서 '따밀인들의 나라'라는 뜻의 따밀나두로 이름을 바꾸었다.[35] 이후 따밀에서는 상점이나 영화의 간판이 따밀어로 되어 있으면 세금을 감면해주거나(이 세금 공제는 GST 시행 후 폐지되었다), 따밀어를 매개어로 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할당제를 제공하기도 했다. 덕분에 따밀나두 곳곳에서 산스끄리뜨를 따밀어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산스끄리뜨어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 차용된 어휘들 역시 제거되었다. 영국 식민지 시대 서양인들의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 바꾸었던 지역명, 정부 기관(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of Tamil Nadu를 순수 따밀어인 Tamizhaga Arasu Thalaimai Seyalagam)의 명칭과 공공 교통수단 내부의 언어 역시 따밀어로 바꾸었다.[36] 뿐만 아니라 외래어 표기를 순수 따밀어로 전환했다. 반힌디어 운동

34) 이는 이후 1967 년 DMK가 다시 집권하면서 라디오 방송국의 이름을 순수 따밀어인 '따밀 바나올리(따밀 라디오, Tamil Vaanoli)로 변경되었다.

35) 1956년 주 개편법에 따라 언어를 기반으로 주가 재편성되면서 재편성된 주들은 자신의 고유 언어로 주의 이름을 바꾸었다. 따밀나두의 까마라즈(kamaraj)는 1962년 입법부에 마드라스를 따밀나두로 바꾸려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못했었고, 1967년 다시 제안한 결과 1969년 1월 14일 당시 주 총리였던 안나두라이에 의해 따밀나두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

36) Pinto Ambrose, *End of Dravidian Era in Tamil Nadu*, 『Economic of Political Weekly』, 34, 12-18, 1999, p. 1483.

을 이끌었던 모한 꾸마르망갈(Mohan Kumaramangalam)은 따밀나두에서 일상생활에서 따밀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영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음을 알렸다. 따밀나두를 시작으로 외래어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고유 따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어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커피는 따밀어로 Kulambi, 차(tea)는 tēnīr, 전구는 Kuzhalvilakku, CD는 Kurunthagadu, 아이스크림은 Panikkoozh, 휴대 전화는 Kaipesi 등이다.

그러나 따밀의 고대 유산을 통해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여 외부에 대항하려던 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다. 따밀의 문어는 오히려 따밀어가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막았다. 비록 따밀어가 13세기 이미 문어로 문법적 체계가 정립되었다 할지라도 따밀어 문어는 글로만 존재하는 언어였고, 따밀어의 문어와 구어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따밀어의 문어와 구어는 다른 언어체계로 발전해왔으며, 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교사나 작가, 의사, 학생 등 고등교육을 받은 따밀인조차도 일상생활에서는 문어 대신 구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따밀어 구어는 문어와 달리 문법이나 문자가 체계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어의 표준 문법체계와 문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자 역시 기존의 따밀어 문자는 고대 문어를 토대로 사용되어 근대 언어의 일부 특정 음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뻬리야르의 제안으로 1947년 문자개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위원회에서는 문자를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로 체계화했다.[37]

---

37) 1951년 따밀나두 정부는 개혁안을 받아들였지만 적용하는데 실패했다. 이후 1978년 따밀나두 정부는 "engum Tamil-etilumTamil"을 모토로 따밀어를 정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음절을 단순화하여 대중들에게 보급했다.

구어를 표준화하는데 근대 대중매체의 역할이 컸다. 라디오, TV, 영화와 같은 근대 대중매체가 발달한 덕분에 표준화된 구어가 쉽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빠르타 짯떼르지(partha chatterjee)에 따르면 "인쇄매체가 발달하면서 출판된 글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민족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출판이 가능하다는 것은 언어, 즉 문법적 구조나 문자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이 불가능한 언어는 단지 방언[38]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 권력이 만들어 진다."고 보았다.[39] 20세기 중반 따밀 문학이 근대로 진입하면서 중세의 종교나 사상, 고전 장르와 형식, 언어에서 등을 돌렸고[40] 민족주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의 사회 문제나 영국 식민 치하에서의 삶과 고통, 독립에 대한 열망 등이 소재로 사용이 되면서 과거 경전에서나 쓰이던 문어는 적합하지 않았다. 작가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41] 시인 수브라마니아 바라티는 근대 따밀시를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학의 언어를 근대화, 단순화 하는데 전념했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순수 따밀어로 해결되지 않는 어휘들이 생겨났다. 구어를 지지하던 이들은 언어의 경제성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민족주의자들은 모든 어휘를 따밀어로 대체하길 원했지

38) 구어는 방언과 다르다. 방언과 구어를 고전문학 작품에서 찾을 수는 없으나 언어가 정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방언은 사라지는 반면 구어는 영화나 라디오, 극장이나 신문 등 지속적으로 변형의 과정을 거친다.

39) Chatterjee, Partha, *History of the Nationalization of Hinduism,* 『Religion and Politic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59-1, 1992, p.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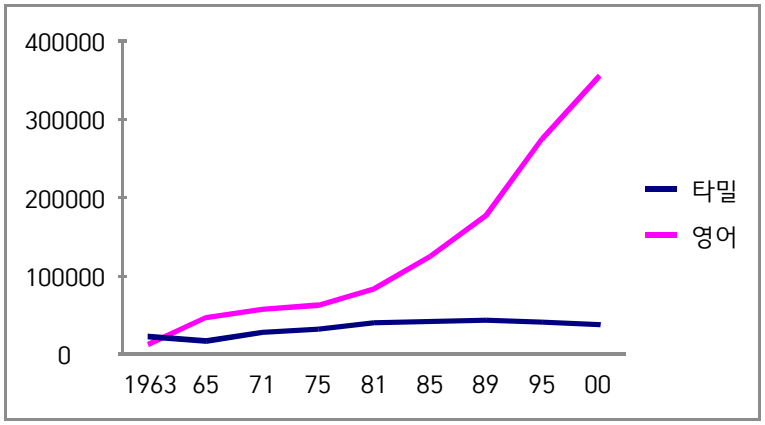
40) Andronov, M. S., *Problems of the National Language in Tamilnad*, 『Namos』, Verlagsgesellschaft mbH., 1975, p. 181

41) Harold, F. Schiffman, *Standardization or Restandardization: The case for Standard Spoken Tamil*, 27, 『Language in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376.

만 사실 근대 이후 발생한 과학 기술이나 사상에 관련된 용어를 완전히 따밀어로 대체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반힌디어 운동과 함께 따밀어로 교과서나 기타 관련 자료와 1934년 정부의 지원 아래 마드라스 따밀 협회(Madras Presidency Tamil association)에서 9개의 연구 분야의 1만개 가량의 기술용어를 따밀어로 바꾸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다.[42] 새로운 과학 기술이나 사상에 대한 어휘는 외래의 것이었고 영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새로운 어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어를 차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따밀에서 반힌디어 운동과 함께 힌디어 대신 영어를 선택했었고, 영어가 행정이나 법원, 교육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었다. 1955년 따밀어를 주의 공용어로 지정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인도에서 가장 먼저 따밀은 고등 교육기관의 과학 수업을 제외한 인문학 수업에서 학습 매개어로 따밀어를 선택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도 따밀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법원에서는 영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보면 따밀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Indiastat의 통계에 따른 1963년부터 2001년까지 따밀어 미디엄 학교와 영어 미디엄 학교의 등록 학생 수를 비교한 표이다.

42) Kailasapathy, K. *The Tamil Purist Movement: A Re-Evaluation,* 『Social Scientist』, 7-10, 1979, p. 34.

〈표 2〉 따밀어/영어 미디엄 학교 등록 학생 수[43]



3중 언어정책을 시도했던 1963년부터 1980년대 중후반까지 따밀어와 영어 미디엄 학교의 등록 인원수는 비슷하지만 1990년에 접어들면서 영어 미디엄 학교의 등록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은 따밀어보다 영어를 선호했다. 일부 국공립학교에서만 따밀어로 수업을 했고, 2.5배가 넘는 수의 사립학교에서는 영어를 선택했다.[44] 따밀어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산스끄리뜨를 제거하는 것은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던 반면 영어는 이에 비해 격렬하지 않았고 가끔은 상징적이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따밀인들은 따밀어에 민족적 정체성을 투영하지 않았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언어를 바라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https://www.indiastat.com/

44) Andronov, M. S., *Problems of the National Language in Tamilnad,* 『Namos』, Verlagsgesellschaft mbH., 1975, p. 185.

5. 결론

영국 식민통치 아래 북인도에서 힌디어는 인도 통합의 기제로 작동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힌디어를 국어로 만들어 인도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비힌디어권의 반대에 직면했다. 인도에서 언어는 자신의 문화와 민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종의 권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영국 식민통치 아래 시행된 3중 언어정책은 기존의 지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2중 언어정책에서 힌디어가 추가된 것으로 전인도에 힌디어를 보급하고자 시행되었다. 하지만 비힌디어권에서는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였고 반힌디어 운동으로 맞섰다.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인도는 단일 국어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이 역시 비힌디어권의 격렬한 반대로 인도는 국어가 아닌 공용어를 지정하게 된다. 영국 식민통치 아래 오디야 주가 언어를 기반으로 분리된 이후 벵갈과 아쌈, 비하르, 따밀나두 등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주에서 분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1956년 언어를 기반으로 주를 편성하는 법이 통과된다. 지역어 운동과 함께 주마다 주 공용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제 8별항에서 22개의 지정어가 헌법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중앙 정부의 3중 언어정책으로 가장 먼저 남인도의 따밀나두에서 반힌디어 운동이 발생했다. 특히 뻬리야르는 자기 존중운동과 드라비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반힌디어 운동을 이끌었다. 반힌디어 운동은 반브라흐만 운동과 따밀의 드라비다 민족주의의 토대 위에 결집했다. 이들은 따밀어와 따밀 민족을 파괴하려는 브라흐만들의 계략으로 보았고, 북인도에 비해 남인도가 차별당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산스끄리뜨나 브라흐만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뀌었고 힌디어 보급을 '힌디어 제국주의'라고 비판하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있었던

반힌디어 운동으로 3중 언어정책이 무산되었고, 독립 이후 힌디어를 국어로 만들려던 북인도의 움직임을 저지했다. 1967년 반힌디어 운동의 영향으로 INC는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하고 드라비다 정당인 DMK로 대체되었다. 집권 이후 따밀의 반힌디어 운동이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었고, 반힌디어 운동은 단지 힌디어를 반대하고 따밀어를 정제하려던 운동에서 벗어나 따밀은 근대화를 겪으면서 더 이상 민족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반힌디어 운동과 함께 따밀에는 따밀어 정제 운동도 함께 일어났다. 따밀어를 정제하고 따밀 문학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먼저 따밀어 속에 차용되거나 흡수된 산스끄리뜨 어휘를 제거했다. 사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던 산스끄리뜨 어휘들을 순수 따밀어로 대체하는 흐름이 생겼다. 따밀나두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산스끄리뜨 이름을 순수 따밀어로 바꾸기도 했고 산스끄리뜨 지명을 따밀어로 교체했다. 이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산스끄리뜨 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남인도의 극예술을 따밀 전통 예술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영국 식민통치와 함께 인도에 만연해있던 영어 사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따밀에서 외래어 표기를 순수 따밀어로 바꾸어 제시했으나,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롭게 생겨난 과학기술 용어를 순수 따밀어로 표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따밀어 속에 혼합된 외래어들을 제거함으로서 순수 따밀어를 복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따밀어의 문어와 구어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구어의 문법을 표준화시키고 문자를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여러 대중매체들의 도움으로 문법을 체계화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힌디어 대신 영어를 선택했던 따밀인들은 따밀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없었다. 결국 반힌디어 운동으로 결집했던 따밀인들은 실리를 선택했고 분열보다는 공존의 길을 가게 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Andronov, M. S., *Problems of the National Language in Tamilnad*, 『Namos』, Verlagsgesellschaft mbH., 1975, pp. 180–193.

Chatterjee, Partha, *History of the Nationalization of Hinduism*, 『Religion and Politic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59–1, 1992, pp. 111–149.

Chakravarthy Venkathesh, Hindutva in Tamil Nadu, 『Economic of Political Weekly』, 30, 22–28, 2000, pp. 2590–2671.

Fickett, P, Lewis, *The Politics of Regionalism in India*, 『Pacific Affairs』, 44–2, 1971, pp. 193–210.

Harold, F. Schiffman, *Standardization or Restandardization: The case for Standard Spoken Tamil*, 27, 『Language in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359–358.

Jayasundara Sarath Niruba, *The Development of Language Education Policy: An Indian Perspective; a View from Tamil Nadu*,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4–11, 2014, pp. 1–4.

Kailasapathy, K. *The Tamil Purist Movement: A Re–Evaluation*, 『Social Scientist』, 7–10, 1979, pp. 23–51.

Pinto Ambrose, *End of Dravidian Era in Tamil Nadu*, 『Economic of Political Weekly』, 34, 12–18, 1999, pp. 1483–1488.

Zvelebil, K. V., *Ravana the Great in Modern Tamil Fiction*,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1988, pp. 126–134.

〈단행본〉

Geetha, V. and Rajadurai, S .V., 『Towards a Non–Brahmin Millennium: From Lyothee Thass to Periyar』, Calcutta: Samya, 1988.

Nayak, Bhabani Shankar,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Policy in Contemporary India』, Delhi: Atlantic Publishers & Distributors (P) Ltd, 2006.

Ramaswamy, Sumati, 『Passion of the Tongue: Language Devotion in Tamil India』, U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7.
Ramaswamy, Vijaya,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Tamils』, Delhi: Jawaharlal Nehru University, 2007.
Saraswathi, S., 『Towards Self-Respect』, Madras: Institute of South Indian Studies, 2004.
Veeramani, K., 『Collect Works of Periyar E.V.R』, Chennai: The Periyar Self-Respect Propaganda Institution, 2005.

〈인터넷〉

http://censusindia.gov.in/2011-Common/CensusData2011.html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outh_Asian_Language_Families.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anguage_region_maps_of_India.svg
https://www.constitution.org/cons/india/p17344.html
https://www.indiastat.com

(**투고일**: 2020. 11. 15 **심사완료일**: 2020. 12. 18 **게재확정일**: 2020. 12. 21)

이지현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 연구교수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81,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506호
전자우편: jh2897@naver.com

[Abstract]

A Reorganization of Indian Language - Based on the Anti Hindi Imposition in Tamil Nadu

Lee, Ji-hyun

This paper focused on the language reorganization based on the anti-Hindi movement in Tamil Nadu after India's independence. Language worked as a power. In the British colonial era, Indian leaders envisioned a unified nation based on the Hindi but it faced resistance from Non-Hindi area. The anti-Hindi movement expanded between Arya - Dravida, and Brahman-non-Brahman. The anti-Hindi movement, which started in 1937 to oppose the 3 language-formular policy, led to a movement against the designed Hindi as the national language. In 1965, the anti-Hindi movement connected a social movement.

With the pure Tamil movement, the Tamil established their identity by removing Sanskrit which are from Arya and loan words. In Tamil, however, it was different between literary language and colloquial language, and it was not possible to express modern ideology and techniques in colloquial language. Therefore, the modern colloquial language of Tamil went through the standardization, Tamil moved from the language of conflict to the language of coexistence.

Keyword : Language policy, Tamil, Language movement, Anti Hindi Imposition, Pure Tamil Movement